

광주시, 국토부 '교통문화지수 평가' 전국 3위

광주시의 교통문화지수가 꾸준히 상승,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특광역시 1위를 한데 이어 교통문화지수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교통안전 선진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3위, 특·광역시 중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3년 13위에서 2024년 9위, 지난해 3위로, 2년 사이 10계단을 뛰어올랐다.

국토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 주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637개 지점에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 18개 평가 지표의 준수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주시는 광역자치체별 평가 결과 총점(지수) 84.48점으로 제주(85.26점), 인천(84.83점)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 교통안전 선진 도시의 위상을 입증했다.

특히 보행행태 부문은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95.17%)과 횡단보도 스마트 기기 사용(89.64%)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운전행태 부문은 음주운전 금지(98.30%), 신호 준수율(97.82%), 이륜차



2023년 13위서 2년새 10계단 상승... 교통안전 선진도시 입증 운전자·보행자 모두 신호준수 최고점... 음주운전 금지도 우수

승차자 안전모 착용(95.43%), 방향지시등 점등(91.81%), 안전띠 착용률(91.36%)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과 제한속도 준수 항목에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 부문에서도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지역교통 안전정책 이행 정도,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 수준, 인구 및 도로연장 당 보행자 사상자 수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교통안

전 및 교통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연중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확대하고 교통규칙 준수 문화 정착,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전문성·공정성 높인다 역량강화 연수 통해 관련 법령·사안처리 등 실무 교육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조사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팔을 걷었다.

전남교육청은 4~5일 순천만생태대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피해 학생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피·가해 학생 간 관계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에 따라 전담 조사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 절차의 전문성과 심의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수에는 기존 및 신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담당 주무관 등 약 100명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 학교문화의 이해 및 전담 조사관 역할 안내 ▲ 학교폭력 관련 법령

및 2026년 사안처리 절차 이해 ▲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피해학생·가해학생·보호자·목격학생 조사) ▲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육 ▲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전담 조사관들의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수 이수율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관계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식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은 공정한 사안 처리의 핵심"이라며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설명절 대비 도로 정비·제설 강화

13일까지 14개 노선 91.7km 포트홀·안전시설물 등 정비 도로파손·폭설 등 신속 대응 연휴기간 24시간 비상근무

나 낙하물, 폭설 등 기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빛고을대로 등 14개 노선 25만㎡ 도로 포장 ▲사암로 등 8개 노선 4만㎡ 차선 도색 ▲도로표지 140개소와 안전시설물

(중앙분리대 등) 150경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45억원을 투입해 ▲ 27만㎡ 도로 포장 ▲ 4만㎡ 차선 도색 ▲ 도로표지 120개소와 도로 안전시설물 229경간 정비했다.

광주시는 도로 정비와 함께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제설 작업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무진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에 대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선제적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10대와 염수분사장치 설치구간 10개를 운영해 기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즉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설 명절 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더 빨리 정확하게... 전남대병원, AI 탑재 최첨단 MRI 도입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인호)은 인공지능(AI)과 최첨단 정밀 기술이 집약된 최신휘 자기공명영상(MRI) 장비를 도입해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병원이 최근 도입한 '시그나 프리미어'(SIGNA Premier)는 MRI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검사자장 성능이 국내 최고 수준이다. 기존 장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미세하게 신호를 잡아낼 수 있다.

뇌신경이나 미세 혈관처럼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부위에서도 왜곡 없이 깨끗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검사 속도 역시 빨라

저 대기·촬영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동안 MRI 검사 시 환자들이 다소 불편을 느꼈던 딱딱하고 고정된 형태의 촬영 장비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환자의 몸 굴곡에 맞춰 밀착시킬 수 있어 신호를 더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통증이나 체형 때문에 자세 유지가 어려웠던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 어린이들도 훨씬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최신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돼 촬영 영상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AI가 스스로 제거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선명하게 복



원할 수 있다. 정신전남대병원장은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최상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민들이 수도권

에 가지 않고도 내 집 가까운 곳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 본격 추진 선정된 마을에 1천500만원... 주민 교류·융화 중심 정책 강화

전라남도는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주민 간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초점을 둔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곳을 선정하고,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강화하는 전남도의 대표적 정착지원 정책으로, 2019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정된 마을에는 마을당 총 1천500만원이 지원되며, 꽃길·쉼터 조성, 마을 공동행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든 사업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기반 조성 사업비는 기존보다 줄여 1천만 원으로 조정하고, 주민 교류와 공동체 활동에 쓰이는 융화사업비를 500만 원으로 확대해 공동체 활동을 강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송용 고흥 석촌마을 이장은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두가 함께 살기 좋은 공동체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최종민 전남도 인구정책과장은 "어울림마을은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착 지원사업"이라며 "귀농어귀촌인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도록 사업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